

문학과 논리와 생명윤리

이 병 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815년 약사와 외과 의사 수련과정의 일부로 런던의 가이스 병원(Guy's Hospital)에 들어가 의학공부를 하기도 했던 영국의 천재 시인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오늘밤 나는 왜 웃는가?"(Why Did I Laugh Tonight?)라는 시에서 "시와 명성과 아름다움은 참으로 강렬하다/ 그러나 죽음은 더 강렬하니, 죽음은 삶의 숭고한 보상이어라"(Verse, Fame, and Beauty are intense indeed, / But Death intenser-Death is Life's high meed)라고 노래했다. 만약, 키츠가 생명을 부정하고 죽음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면, 그의 문학은 인간의 생명윤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의 작품을 고전적 품격을 지닌 걸작으로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츠의 시를 그와는 반대로 읽는다. 즉, 이 작품에서 키츠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삶과 생명의 충동이 좌절되는 경험을 노래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역설적으로 생명의 충동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문학은 본질적으로 생명윤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문학의 논리는 곧 생명의 논리요, 생명에 대한 찬양이며, 생명을 위한 투쟁이다. 만약, 어떤 문학작품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윤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덜 떨어진 아마추어리즘의 치기어린 구토(嘔吐)거나 아니면 천박한 상업주의와의 계산된 매춘일 뿐이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인간의 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령, 그것도 전투적인 '감성적 강령'일 뿐이다.

문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는데, 이것은 속되게 표현하면 문학의 애교이고, 전술이며, 소비자(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허위 광고'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학이 현란하게 표현하는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을 감각적으로 속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는 반대로 문학의 전술적 논리는 매우 비경제적(혹은 超경제적)이며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키츠의 시에서도 보듯이 문학의 '위험한 발상'은 오직 '인간의 근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다.

II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예를 수없이 들 수 있다. 가령,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은 비도덕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의사나 의대생들의 영원한 도덕적 이상형인 슈바이처나 노면베쑤와 같은 인물은 결코 소설의 훌륭한 주인공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슈바이처나 베쑤와 같이 도덕적으로 '이미 완성된 인물'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문학의 '위험한 발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한 '문제적 인물'(루카치)들이다. 예컨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주인공 바자로프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등장하는 라스콜리니코프, 스톨리가일로프 등은 도덕적으로 '하자(瑕疪)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생명윤리를 부정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瑕疪)가 있는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변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혼의 구원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만다.

소비자들은 처음에 문학의 '위험한 발상'에 혹해 거기에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문학의 '근본적인 논리'에 수긍하게 된다. 이렇게 문학은 흔히 역설의 논리를 즐겨 사용하면서 비도덕적인 인물을 통해서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반(反)생명으로 '위장한' 생명윤리의 사상을 펴트린다. 바로 이것이 윤리학의 방법과 다른 문학의 '비윤리의 윤리학'이다.

칠레의 현대시인 니카노르 파라(Nicanor Parra)의 탁월한 풍자시들은 오직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신을 모독하는 듯 하면서 신성(神性)을 찬양하며, 이로써 현대인의 왜곡된 종교적 심성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속세의 보통 사람과 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온갖 종류의 문제를 머금은 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더 생각하지 마소서.//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면서/ 악마가 당신을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비웃지만/ 우리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그 사악한 미소를 걱정하지 마소서.// 불손한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마소서./ 신(神)들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우리 아버지"의 전문)

신은 완전무결하지 않고, 인간인 우리가 신의 불완전함을 감히(?) 용서한다는 거대한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니카노르 파라는 그에게 묘한 미소를 던지며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것이다. "감각의 귀가 아니라 보다 고귀한 것/ 영혼을 위하여 곡조 없는 노래를"(키이츠) 들으라. 이것이 바로 문학의 논리이다.